

저축은행 시장, 일본 등 외국계 자본 몰려온다

자산규모 1위 SBI, 광주지점 오픈 친애, 지난해 광주·광양에 출장소 시장 진입 쉽고 고금리 상품 판매 향토 저축은행 위축... 서민피해 우려

저축은행업계 자산규모 1위인 SBI저축은행이 광주에 신규지점을 내는 등 서민금융 분야의 외국계 자금 유입 바람이 거세지고 있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2일 SBI저축은행이 전주에 이어 광주·전남 지역 금융 중심지인 금남로에 지점을 신규 오픈하고 본격 영업에 돌입했다. SBI저축은행은 글로벌 종합금융그룹인 SBI홀딩스의 자회사로 대주주인 SBI홀딩스는 총자산 29조원 규모이며 홍콩, 중국, 인도 등 전 세계 20여 개국에 총 213개 금융네트워크를 보유한 글로벌 금융그룹이다.

이에 앞서 호주와 유럽에서 모기지금융을 기반으로 성장한 글로벌금융기업 페퍼가 지난 10월 광주 서구 치평동에 광주여신전문출장소를 냈으며, 일본계인 친애저축은행 역시 지난해 광주와 광양에 출장소를 열고 영업중이다.

이 밖에도 SBI처럼 부실 저축은행 구조조정과 맞물려 광주·전남지역으로 영업장을 확대를 노리고 있는 저축은행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외국계 금융기관의 지역 영업 확대는 당분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실 일본계 자금을 중심으로한 광주·전남 지역의 외국 자금 유입은 오늘 내일의 일이 아니다. 이미 수년전부터 계속되고 있고 대부분 분야에서 고착화되어 있었다고 봐야한다.

광주·전남 지역에서 영업하고 있는 13개의 저축은행 중 SBI저축은행을 비롯해 친애(J트러스트)·OK(아프로서비스그룹)·SC스탠다드(트러스트 인수 예정)가 일본계 자본이고 페퍼는 호주를 중심으로한 유럽계이다. 점포수는 외국계 자본이 19개 중 7개



업계 자산규모 1위인 SBI저축은행이 최근 광주 동구 금남로에 광주지점을 오픈하고 3.2% 정기예금 특판(500억원 한도) 행사를 실시하는 등 공격적인 영업을 하고 있다. <SBI저축은행 제공>

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지역 저축은행 업계 관계자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인낸싱(PF) 투자로 부실화한 국내 저축은행을 구조조정하는 과정에서 국내에서 마땅한 인수자를 찾지 못하자 초저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일본계 자본이 대거 몰려들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타 금융권에 비해 시장 진입이 수월하다는 제도적 혜택은 물론 30% 이상의 고금리 대출상품을 판매, 고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이 같은 외국계 자본의 공격적인 유입에 대해 경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금융시장의 허리에 해당하는 제2금융권시장이 제3금융권시장처럼 일본계에 잠식되면서 서민피해가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다. 일부 일본 자금의 대부업체가 설립취지와 맞지 않게 고금리 대출 업무에 집중하면서 문제가 불거지기도 했기 때문이다. 지역 저축은행업계 관계자는 “전국단위 대규모 저축은행과 영세한 지역 저축은행이 사할을 건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계 자금의 지역금융시장 확대는 우려되는 측면이 많다”며 “국부유출은 물론 향토 저축은행의 위축을 가져와 결국 서민들의 피해로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국내 기업들, '美 블랙프라이데이' 판촉전

블랙프라이데이가 닷새 앞으로 다가왔다. 미국 시장에 발을 들인 기업이라면 놓칠 수 없는 쇼핑 주간이 시작된 것이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LG전자,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 등 국내 기업들은 이번 주부터 미국에서 할인행사에 들어간다. 전자업계는 베스트바이, 월마트 등 미국 대형 유통업체에 물량을 대량 공급하는 데 만족하지 않고 홈페이지에서 직접 판매도 한다.

삼성전자는 다음 달 1일까지 미국법인 홈페이지에서 TV, 카메라, 태블릿, 모니터, 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SSD) 등 총 164개 제품을 할인된 가격에 제공한다.

전면에 내세운 제품은 TV다. UHD(초고해상도) TV뿐만 아니라 커브드(곡면) TV, PDP(플라즈마디스플레이패널) TV 등 총 56대의 모델을 선보였다. 크기는 최소 24인치부터 최대 85인치까지 다양하며, 40인치 모델이 9개로 가장 많고 55인치와 65인치 모델도 7개씩 있다.

권장 소비자 가격과 비교했을 때 할인율이 가장 높은 제품은 50인치 UHD TV다. 3500달러(390만원)에서 63% 할인된 1300달러(145만원)에 판매된다.

하지만 이 제품의 블랙프라이데이 쇼핑주간 직전 판매가격

삼성전자, 현대·기아차 등 할인행사 현지 법인 홈페이지 통해 직접 판매도

(1600달러·178만원)과 비교하면 19% 저렴한 것이다.

전체 TV의 권장 소비자 가격 대비 할인율은 평균 50%에 육박하지만, 최근 판매가를 기준으로 삼으면 평균 할인율이 21%로 낮아진다. 이는 TV 제조업체들이 재고를 처리할 목적으로 4분기부터 TV 판매 가격을 조금씩 낮추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카메라와 태블릿도 각각 30개, 21개 모델을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 할인율은 TV보다 낮은 편이다. 카메라의 권장 소비자 가격 대비 할인율은 최소 11%에서 최대 42%이고, 태블릿의 할인율은 10~20% 수준이다.

LG전자 역시 홈페이지에서 블랙프라이데이 쇼핑 주간에 맞춰 울트라HD TV, 올레드(OLED·유기발광다이오드) TV, 스마트폰 등을 할인가에 판매할 예정이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제품을, 얼마나 저렴한 가격에, 언제 판매할 것인지는 아직 베일에 가려진 상태이다.

LG전자 관계자는 “해당 물품과 가격을 공개하는 시점이 내부



삼성전자와 LG전자,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 등 국내 기업들이 블랙프라이데이를 앞두고 이번 주부터 미국에서 할인행사에 들어간다. <경주일보 자료사진>

적으로 정해져 있지만 아직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국내 완성차업체도 블랙프라이데이를 계기로 TV 광고를 늘리고, 판매자에게 주는 인센티브를 올리는 등 판촉을 강화하고 있다. 현대차 관계자는 “블랙프라이데이 기간에는 업체 간 판촉 경쟁이 치열해지는데 특히 일본 경쟁 업체들이 엔저를 등에 업고 대대적인 판촉 활동을 진행중”이라며 “이에 맞서기 위해 현대차도 재고 할인가에 나섰다”고 밝혔다.

■ 주간 증시 포커스

中 금리인하·美 소비시즌 IT·화학·철강 반등 예상

9월중순부터 시작된 국내증권시장에서 외국인 순매도를 일으켰던 중요한 요인은 환율시장이었다. 환율시장에선 여전히 엔화약세가 지속되고 있다. 일본 중앙은행은 연간 80조엔 규모의 기준 통화정책을 유지하기로 했고 일본 정부도 소비세율 인상을 연기하는 등 경기부양 의지를 강력하게 표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환율시장의 방향은 아직 크게 변하지 않았지만 국내 증시는 최근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지난 주 외국인 순매입에 따른 MSCI지수 편입에 따른 선취매가 있었지만 1조원이 넘는 순매수 흐름이 다시 나타나고 있다.

환율시장에서 엔화약세가 나타나고 있지만 원달러 환율도 1110원대를 넘어 113.80원으로 상승해 원·엔환율이 균형상태를 유지한 영향이라 생각된다.

지난 21일 중국 인민은행이 2년 4개월만에 중국의 기준금리를 할 수 있는 1년 만기 예금금리를 3.0%에서 2.75%로, 대출금리는 6.0%에서 5.6%로 각각 인하했다.

인민은행은 이번 금리조정이 ‘중성조작’(특정 방향성을 갖지 않는 조치)에 해당한다며 중국 경제가 합리적인 구간에 있고 물가 인상폭이 전반적으로 낮아진 상태에서 금리수단을 활용해 미세조정에 나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금리인하는 중국정부가 3분기경제성장률이 7.3%에 그치는 등 중국내 경기둔화속도가 빨라지는 조짐이 나타나면서 적극적인 경기 부양조치가 필요하다는 시장분위기를 반영한 것으로 유럽증시는 급등세를 보였고 미국증시도 상승했다.

중국의 기습적인 기준금리 인하에 선진국 주가가 크게 올랐지만 국내증시에 미치는 영향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코스피지수도 해외증시와 연계해 단기적인 저항선인 2000선 부근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며 중국경기엔 민감한 소재 및 철강주의 반등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중국의 경기부양책은 중국의 경기 펀더멘털이 취약하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중국의 경기체제와 부동산가격 하락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번주 증권시장은 유럽과 중국의 경기둔화가 우려되는 상황이지만 중국금리인하 영향과 함께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와 크리스마스 이어지는 연말 소비시즌에 대한 기대감이 호재로 반영되며 저점을 넘어 나갈 것으로 보인다.

IT, 화학, 철강 등 가격메리트를 바탕으로 한 수출주들의 반등세가 좀 더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연말 소비 관련주에 대한 관심도 필요해 보인다.



정계두 <유진투자증권
광주북지점장>

<h3>신축원룸 매매</h3> <p>전대정문 2분! 전대후문 2분! 신축 4층</p> <p>룸12개 1층점포1개 2-3층 룸 10개 4층주택 1개 옥탑</p> <p>월수익500만 매가6억7천 (보4천,용자1억5천)</p> <p>원룸전문취급 원룸물건 다양있음 (금액 4억~12억)</p> <p>010-6670-9800</p>	<h3>상가건물매매 7층 사우나건물</h3> <p>1. 북구 우산동 안보회관 사거리 옆 7층 건물사우나 대지 96평/건평 570평 월수익 980만 주인 직접 운영 시 2,000만 수익 발생(1년2억 4천) 매가 13억(보 2억, 용 5억)</p> <p>2. 북구 우산동 4층 상가주택 건물 대지 120평/건평500평 월 수익 900만, 매가 10억</p> <p>3. 북구 오룡동 8층 건물 1층 상가, 삼성전자 앞 보 2억, 용 15억 오피스텔 58개 월 수익 3,000만, 매가 35억</p> <p>4. 북구 상가건물 3층 토지 160평/건물 200평 월 수익 1,200만, 매가 21억</p> <p>5. 수원지구 상가건물 4층 (우미아파트 밑) 월 수익 900만, 매가 17억</p> <p>(주)대신 010-6670-9800, 062-952-5584</p>	<h3>2층상가 건물매매</h3> <p>나주 삼영동 영강초교 앞 2층 영산중·영산중고교 대덕아파트 앞 건물 135평, 1.2층 80평 1층-6칸 2층-2칸 (80평 개인사용가) (분할가능, 주택가능) 월 200만, 용 1억 매가 3억2천 할인 -> 2억8천</p> <h3>목포 전원주택 매매</h3> <p>목포시 용해동 전원주택 바닷가 5분, 용해동교회 이루시장 1분 금호타운 아파트 바로 앞 노후주택 적합 대지 310평, 주택2채 50평 현 무화과 식재 됨, 과수원 매가 3억 2천 할인 -> 2억8천</p> <p>010-6832-9700</p>	<h3>오피스텔 매매 (수익상가)</h3> <p>1. 동구 수기동 제일오피스텔 6층 48평 올 리모델링 완비 천변쪽 방향 전망 좋음. 즉시 입주 가, 임대 가 보 1천, 월 70만 (용 5천) 48평 매가 1억 5천 할인 -> 1억1천</p> <p>2. 서구 상무지구 수림오피스텔 6층 15평 내부시설 완비 임대 완료 보 300만, 월 33만 (용 1,300만) 15평 매가 5,000만</p> <p>3. 쌍촌동 원룸 운천역 1분 매가 3500만</p> <p>4. 서구 치평동 상무지구 정연 오피스텔 3층 32평 매가 1억1천만 (보1천, 월70만, 용5천만)</p> <p>062)527-7600</p>	<h3>경매 무료 교육</h3> <p>운암점 챔피언 운암동 문화예술회관 육교앞 현대빌딩 8층</p> <p>기본반 · 고급반 실전반 · 평생반</p> <p>이제 경매가 대중화 시대 교육화 실천가능</p> <p>010-6832-9700 062)513-4900</p> <h3>경매 무료 교육</h3> <p>상무지구 12월 1일 12월 1일 오픈(상무지구)</p> <p>최고의 실전반 모집중</p> <p>010-6670-9800 062)382-5500</p>	<h3>(주)대신경매 추천물건</h3> <p>근린시설 · 근린주택</p> <p>① 서구 화정동 (토 171㎡, 건 501㎡) 감정이 2억7천 최저가 1억9천 ② 서구 화정동 (토 372㎡, 건 1255㎡) 감정이 10억 최저가 5억7천 ③ 동구 동명동 (토 838㎡, 건 2190㎡) 감정이 17억 최저가 11억 ④ 서구 치평동 (토 1599㎡, 건 17380㎡) 감정이 223억 최저가 156억 ⑤ 남구 주월동 (토 236㎡, 건 594㎡) 감정이 4억5천 최저가 4억5천</p> <p>광주 시외지역</p> <p>① 목포시 무안동 (토 72.7㎡, 건 115.6㎡) 감정이 3억 ② 장성군 삼계면 (토 1068㎡, 건 631㎡) 감정이 2억5천 최저가 1억4천 ③ 목포시 무안동 (토 72㎡, 건 115㎡) 감정이 1억 최저가 7천</p> <p>토지</p> <p>① 광주 광산구 쌍암동 (토 3974㎡) 감정이 45억 / 최저가 25억 (상업지역, 최고위치, 오피스텔, 도시형 주택적합) ② 광산구 송치동 (토 786㎡) 감정이 7천4백 ③ 광산구 송정동 (토 35㎡, 지분매각) 감정이 1천 최저가 240만</p> <p>경매학원 배우실 분 연락요망 공인중개사 자격증 있으신 분(직원채용)</p> <p>010-6670-9800, 062)952-5584</p>
--	---	--	--	--	---